

광주·전남 교육감 신년 인터뷰

안순일 광주시교육감과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이 새해를 맞아 광주·전남 교육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안 교육감은 '학생 중심의 으뜸 광주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학생실력 향상과 교직원 정령도 제고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글로벌 인재 육성'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사 자질향상'을 2007년 최대 역점 과제로 꼽았다. <편집자주>

“외고 설립 직접 나서”

안 순 일 광주시교육감

-을 중점시책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강화를 내세웠는데. ▲학교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참된 인간성을 기르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의 바른 몸가짐과 고운 말씨, 정서순화 위해 '아름다운 학교'와 '사랑이 넘치는 교실'을 만들겠다. 학생 인권 존중 풍토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학생 실력 향상 방안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급선무다. 일선 학교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와 포상제도를 도입·시행하겠다. '진학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해 체계적인 학력신장을 도모하겠다. '빛고를 범시민 독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광주는술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해 통합논술교육을 강화하겠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 등 수준별 교육을 확대하겠다. -학생들의 체력증진 묘안이 있다면. ▲졸업기를 널리 보급하겠다. 교육감배 졸업기 대회도 개최하겠다. 종강체조 시간에 각 교실에서 가볍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실내종강체조용CD를 제작·보급하겠다. 학

생 비만 예방을 위한 비만클리닉과 상담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추진 중인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협의 중이다.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영어로만 대화가 가능한 잉글리시 존 시범운영 및 확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영어캠프 운영 등이 있다. 광주 5개 구청과 협조해 구별로 영어체험학습 중심학교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인천의 경우 모 기업에서 영어마을보다 규모가 작은 영어타운을 조성해 일정기간 운영 후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영어타운은 예산도 적게 들고 실속도 있다. 영어교육업체와 협의해 영어타운을 조성하는 방안도 궁리 중이다. -사립 외국어고 설립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전남 농·어촌의 초·중·고교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 문제는 고등학교인데 일반계는 1군 1우수학교를 중심으로 틀을 만들고, 실업고는 예를 들어 진도하면 소리·사회등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군별 특성화고를 육성 발전시키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 -창의성 교육을 강조했다. ▲최근 전남교육시책중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분야다. 이를 위해 실용성 있는 창의성 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창의성 관련 교



교사 열정갓도록 포상제 도입

구별 영어체험학교 조성 검토

▲학교법인 보문학숙의 경우 개교 후 3년 동안만 학생장학금과 교사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혀 사실상 설립이 힘들게 됐다. 올해 안에 사립 외국어고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감인 내가 직접 나서 독지가를 찾고 있다. 현재 2명의 독지가가 설립의 사를 밝히고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교사 외국어 연수 확대”

김 장 환 전남도교육감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은. ▲회화중심의 전남 영어교육이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올해는 전남외국어연수프로그램(JLP)을 통해 1기수에 배출되는 교사들을 지난해 32명에서 올해부터 120명으로 늘리고, 7~8년의 연수 주기를 2~3년으로 앞당겨 영어교사의 질적향상을 통한 학생들 회화 영어교육을 강화하겠다. 또한 시·군별 영어타운을 통해 영어에 대한 동기 유발, 자신감, 외국어 갈때의 소양등을 습득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 농·어촌 교육발전은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전남 농·어촌의 초·중·고교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 문제는 고등학교인데 일반계는 1군 1우수학교를 중심으로 틀을 만들고, 실업고는 예를 들어 진도하면 소리·사회등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군별 특성화고를 육성 발전시키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 -창의성 교육을 강조했다. ▲최근 전남교육시책중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분야다. 이를 위해 실용성 있는 창의성 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창의성 관련 교



시·군별 영어타운 집중 지원

군 특성화고 적극 육성하겠다

원연수와 연구회 육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교실수업을 통해 창의성 개발 교육을 하겠다. -실력전남을 위해서는 교사자질 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가 변하지 않으면 학교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교사의 자질향상은 실력전남의 기초다. 이를 위해 자생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공부하는 교과협의회등을 활성화 시키고, 연수횟수를 늘리고 질적 변화를 통해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겠다. -지난해 국가공직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위를 기록했는데.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 최일선에서 시대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제도와 하고 규정화 해 내실있는 '클린전남교육'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도교육청 이전문제는. ▲2009년 3월 이전 계획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사무실 공간 배치 등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했으며 현재 지하 터파기 작업이 진행중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캠퍼스 소식

한국MS와 산학협력 양해각서 체결

전남대(총장 강정채)가 11일 정보통신원 4층에서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식을 개최하고,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대표이사 유재성)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전남대는 옛 여수 대학의 통합으로 달라진 교육 및 업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최근 정원엔시스템·마이크로소프트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사업이 계획대로 완수되면 오는 2008학년도 1학기부터 다양한 채널 확보,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포털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구축

특성화사업 대학 선정 24억 지원받아

조선이공대학(학장 김형곤)이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도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대학으로 선정돼 24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영역별 특성화사업(II영역)인 '광산업 인력양성 사업'은 6년 연속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광산업 인력양성 사업'에는 컴퓨터응용기계과·하이테크CAD/CAM과·전기과·광전자정보과·정보통신과·생명환경화학공과 등 조선이공대학 6개 학과를 비롯해 광주시·광기공과·광주공과·원반도체 등 28개 기관 및 산업계가 참여하고 있다.

팀제 도입...4처 9팀 1실로 조직 개편

동신대(총장 정기연)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최근 단행했다. 기존의 5처 9과 2실이 4처 9팀 1실 체제로 바뀌었다. 기획처가 기획협력처로 변경됐으며 교무처와 입학관리처는 교무입학처, 학생처와 학생능력개발센터는 학생능력개발처로 각각 통합됐다. 기존 과장과 계장 직위는 유지하되 팀원-팀장-부처장-처장으로 결재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였다. 또 1직급 1직위 원칙을 탈피해 5급이나 6급이 팀장을 맡을 수 있도록 개

또 협약학과 사업에 하이테크CAD/CAM과(CAD/CAM) 전문기술인력양성과 메카트로닉스과(지역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 채용을 위한 사업)가 선정돼 실제 고교생에게 진학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형곤 학장은 "지역 대학은 지자체 및 산업체와 협력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며 "이번 특성화사업 대학 선정은 계기로 인재 조기 발굴과 지역사회 고용창출 확대에 전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내 아이 초등학교 입학 준비 어떻게

규칙적인 생활하게 계획표 함께 만들라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취학대상 아동을 둔 부모의 걱정은 태산이다. 예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지, 학교공부는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 신경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광주서부교육청이 최근 내놓은 입학준비 장학자료를 통해 자녀의 행태에 따른 적절한 대비책을 살펴본다. ▲계몽을 피우고 행동이 느린 아이=도와주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뒀다. 아이가 자신의 행태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켜보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놀이에만 열중하는 아이=아이와 대화를 통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주의가 산만한 아이=아이에게 명상

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도록 해 참을성을 길러주도록 한다. 자녀와 눈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 번에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말하고 계획표를 함께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한다. ▲말을 더듬는 아이=크고 깊숙이 숨을

내쉬는 연습을 시키고, 한번 숨을 내쉬는 동안에 하나의 문장을 말하도록 한다. 말이 많거나 말하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는 환경 때문에 아이가 말을 더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위를 살펴 바꾸도록 한다. ▲글씨를 바르게 쓰지 못하는 아이=교과서의 글씨를 복사해 코팅한 후 이를 책받침처럼 사용하거나 미농지처럼 아래가 살짝 비치는 종이를 놓고 글씨 쓰기 연습을 시키면 효과적이다. 칸 안에 점선 표시가 돼 있는 칸 공책은 아이들이 균형있게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시몬스침대 광주 금남로점. 현대적이고 편안한 침대를 소개하며, 'OPEN' 캠페인을 알리고 있다. 다양한 침대 모델과 매트리스를 보여주고 있다.

Biothys Korea가 알려드립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Biothys Korea의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대리점 모집'을 알리고 있다.